

## 월요광장

## 카리스마 이후의 시대

김우창  
이화여대 석좌교수

정치계의 속사정을 알 수는 없으나, 보도로 보면 민주당의 대표 선출은 별로 시끄러운 소리가 없이 끝난 것으로 보인다. 친노, 반친노, 호남, 영남 또는 다른 계열이나 파벌 등 사이에 격렬한 갈등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들리지 않는다. 순조롭게 일이 끝난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런데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나라의 정치의 위상이 보이지 않게 바뀌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주목되는 한 가지 사실은 대표로 선출된 김한길 의원의 이름은 아마 크게 알려진 이름이 아닐 것이다. 과거의 정치 지도자들의 경우와는 달리 오래 알려진 지도자의 이름이 아니라는 말이다. 이것은 비단 김한길 의원 또는 민주당에 한한 이야기는 아니다.

새누리당의 황우여 대표의 경우도 비슷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떠한가? 대통령으로서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겠지만, 그 이름이 지도자의 이름으로서 오래 새겨진 것이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래도 이름이 익숙하다면, 그것은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기 때문이다.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의 경우에도 인품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들이 있었지만, 노무현 대통령과의 관계가 아니면, 이름이 뚜렷하게 기억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의 지도적인 인물의 이름은 앞서 간 다른 이름의 후광을 받는 이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그러한 후광도 등에 업지 않은 첫 정치 지도자였다.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정치 지도자의 권위는 엄격히 말하건대, 법과 제도에서 생겨나는 것이지, 어떤 개인적인 성가(聲價)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지도자에게 특별한 힘-반드시 현실적인 권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어떤 힘을 연상한다.

지도자는 많은 경우, 막스 베버가 말한 바와 같이 카리스마에 힘입어 지도자가 된

다. 초인간적인 어떤 힘, 성스러운 힘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예언자, 전쟁 또는 다른 격렬한 투쟁에서 자기 희생의 각오를 보여 준 영웅, 또는 모범적인 정신적 삶을 구현한 사람-이러한 사람들이 그런 힘을 가지게 된다.

박정희 대통령은 쿠데타와 강도 높은 근대화 정치로써, 좋은 나쁜 듯, 정치와 힘을 결합하였다.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은 목숨을 건 민주화 투쟁을 통하여 다른 사람이 전통하기 어려운 이름과 힘을 얻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 독특한 민중적 인품이 돌보이게 한 대통령이었다. 그 특별한 힘은 비극적 최후에서 상징적으로 표현되었다.

그러나 새로 선출되는 지도자들의 면모를 보면, 카리스마의 시대가 지났다는 느낌을 준다. 그것은 사람됨 때문만은 아니다. 카리스마를 가진 지도자가 등장하는 것은 시대가 영웅을 요구하는 시대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볼 때, 이름이 알려진 영웅적인 지도자가 필요한 시대는 행복한 시대가 아니다. 요순시대는 동아시아의 이상향을 상징하는 시대인데, 나라의 형편을 살피고자 암행 순수하던 요 임금은 농부들이 배를 두

드리고 땅을 치면서 노래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이 임금의 덕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다른 이야기로는, 임금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였다고 한다. 요 임금이 들었던 격양가(擊壤歌)를 부른 농부들은 스스로 우물을 파서 물을 마시고, 스스로 경작하는 밭에서 난 곡식으로 배를 채우고 배를 두드릴 수 있었다.

그러나 스스로 물과 곡식을 마련할 수 없는 세상이 오늘의 세상이다. 오늘의 많은 문제는 영웅적인 결단만으로 간단히 해결될 수 없다. 그리하여 오늘의 문제에 합당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그것에 열려 있는 사람이 오늘이 요구하는 지도자라고 할 수도 있다.

인간적 정의로움을 보장하는 것은 지도자의 도덕성이다. 베버의 카리스마의 원천에는 도덕적 실천의 모범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카리스마적 지도자에 대한 요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다만 잘 보이지도 않고, 오랜 시간을 통해서만 드러나는 도덕적 품격은 성질급한 오늘의 인간에게는 카리스마적 힘을 발휘할 수 없을는 지 모른다.

## 社說

## 윤창중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이 우선이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파문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그의 경질과 함께 이남기 흥보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데 이어 허태열 비서실장은 12일 대(對)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허 실장은 “국민 여러분께 심히 마음 상하신 점에 대해 입이 열개라도 할말이 없을 만큼 무조건 잘못된 일로 너무나 솔구하고 죄송스런 마음 금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그의 표현대로 여성 대통령의 ‘임’인 대변인이 미국 방문 수행 중에 여성에게 몹쓸 짓을 했다니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전대미문의 참사가 아닐 수 없다. 이번 사건으로 한국은 하루 아침에 세계의 조롱거리로 전락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부끄럽고 참담하기 그지 없다. 미국 언론과 외신들도 이 사건을 비중있게 다루기 시작했다니 이제 나라 신망을 걱정해야 할 차지다.

그런데도 윤씨는 11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여성 인턴의 허리를 한차례 톡쳤을 뿐이며, 그 인턴이 호텔방에도 들어

오지 않았다”고 성추행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해 그다운 뻔뻔함을 과시했다. 게다가 그는 미국에서 도망치듯 귀국한 데 대해 “이남기 흥보수석이 귀국을 종용했다”고 주장해 집안싸움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윤씨의 주문은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 인사’와 떼어 놓고 생각할 수 없다. 그는 언론계 시절과 대선 전 막말과 색깔론으로 악명을 떨쳤다. 박 대통령이 세간의 반대를 두릅쓰고 그를 기용한 뒤 더욱 기고민장해졌고, 갈수록 인하무인이 됐다. 결과적으로 이번 사건의 원죄는 박 대통령 자신에게 있는 셈이다.

청와대는 성추행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 이 사건의 전말뿐만 아니라 그의 도피 과정 등을 조사해 국민 앞에 날낱이 밝혀야 한다.

검찰도 즉각 수사에 착수하여, 미사법당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이 있을 경우 협조해야 한다. 진상 규명이 최우선이다.

## AI 매몰지 수질 관리 예산 한푼도 없다니

최근 중국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가 다시 발생,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33명으로 늘면서 우리나라로 비상이 걸렸다. 이번에 중국에서 문제가 된 AI의 주된 피해 지역이 광주·전남과 근접한 상하이여서 강 건너 불구경할 일이 아니다.

전남에서는 지난 2011년 AI가 집중

적으로 발생해 축산농가가 큰 피해를 입었다. 2011년 1~3월 사이 나주 56곳과 영암 47곳을 비롯해 화순, 장흥, 보성 등지에서 111개 지역에 걸쳐 AI가 번졌다. 당시 폐사한 오리와닭 모두 308만8000여 마리에 이르러 축산농가는 물론 관련업계가 큰 손실을 감수해야 했다.

더욱이 심각한 오염이 걱정되는 AI 매몰지에 대한 당국의 사후처리가 하술한 것으로 지적돼 2차 피해도 우려된다.

전남지역 AI 매몰지 74곳 중 절반이 넘는 40곳의 지하수가 복통을 유발하는 염소이온 기준치를 최대 109배 초과하

는 등 심각하게 오염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일부 지역은 먹는 물 기준뿐 아니라 생활·농업용수로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한다.

그럼에도 폐사한 오리와 닭 308만여 마리를 나눠 묻은 이후 정부와 전남도의 매몰지에 대한 수질 개선 의지가 없어 주민들은 크게 불안해하고 있다.

전남도는 그동안 매몰지 지하수 오염이 심하거나 무너져 내린 곳에 대해 정부 지원을 받아 수조만원 해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올 해는 매몰지 수질 관리 등을 위한 전남도의 예산이 한푼도 없는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우수기가 다가오고 있는 만큼 당국은 매몰지 관리를 위한 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 침출수 누출 방지와 함께 지하수 오염을 막기 위해 매몰지 실태를 점검하고,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서둘러 보수해야 한다. AI 예방은 물론, 완벽한 사후처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 無等鼓

대한민국 사람들의 일요일 풍경 중 하나. TV에서 오프닝곡 ‘뺨뺨빠빠~’가 흘러나오면 오늘은 또 어떤 명물들이 등장할까 궁금해하며 TV앞에 앉는다.

출연자를 믿장하게 하는 ‘뽕’ 소리에 웃음을 터지고, 현직 가수를 능가하는 실력자의 등장에 감탄사를 연발한다. 노래는 뒷진인에 온갖 퍼포먼스를 감행하고, 동네 특산물 자랑에 여념이 없는 그들은 모두 ‘주인공들’이다.

1980년 첫 선을 보인 KBS ‘전국노래자랑’은 꾸준히 시청률 9~10%를 기록하는 국민프로그램이다. 5월 현재 출연자는 3만 명에 달하고, 관객수는 1000만 명을 넘는다.

1984년부터 MC를 맡고 있는 송해는 ‘전국노래자랑’의 아이콘이다. 출연자들의 이야기를 자연스레 이끌어내는 명 MC 송해는 대체불가해다. 수년 전 ‘전국노래자랑’ 취재 때 놀란 건 MC 송해의 모습이었다. 당시 칠순이 훌쩍 넘은 나이에도 그는 리허설 현장에서 조자

한순간도 쉬지 않았다. 함께 노래하고, 춤을 추며 출연자들과 호흡을 맞췄다.

‘전국노래자랑’이 긴 오랜 세월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건 ‘사람 사는 이야기’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음정·박자

제대로 모르는 80세 노인도, 타국에서 날아온 베트남 여느도, 끼를 주제하지 못하는 8살 꼬마도, 가수가 꿈인 20대 젊은이도 이날 만큼은 스포트라이트

를 받는 스타다.

700만 명의 관객을 쓸어담은 ‘아이언맨’의 위용 속에서도 영화 ‘전국노래자랑’이 선전하고 있는 모양이다.

송해도 카페오로 등장한 ‘전국노래자랑’은 힘들어도 꿈을 키워주기 위해 노력해온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주인공은 미용실 보조로 일하면서도 가수의 꿈을 잊지 않는 ‘봉남’. 트로트 ‘무조건’으로 유명한 가수 박상철의 이야기와 ‘전국노래자랑’에 등장했던 많은 사연들이 작품의 모티브가 됐다.

소박한 꿈을 꾸며 살아가는 이웃들의 이야기, 거기엔 우리의 모습도 담겨 있다. 김미연문화부정 mekim@kwangju.co.kr

## 기고

## 피해자와 인권에 대한 단상

문선주  
광주지검 형사1부 검사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재판이 끝나버렸습니다. 분하고 어울합니다.”

형사사건 피해자들로부터 종종 듣는 말이다. 형사 재판에서는 판사와 검사,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이 소송의 대부분을 주도하고 진행해 나가게 된다. 즉 별도로 증거 법상의 필요에 의해 증인신문이 이루어지는 때를 제외하고는 피해자가 소송에 참여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때문에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불만과 원성을 단순히 이유 없는 투정이라고 치부해 버리기보다는 보다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여기서 간과되기 쉬운 것이 범죄자이다. 피해자의 인권에 대한 배려다. 범죄피해자는 그 자체로서 자신의 생명, 신체, 재산 등 기본권을 타인에 의해 침해당한 자이다. 그런데 형사 절차에서 이러한 범죄피해자들이 절차에서 소외되거나 피의자의 인권을 강조하다가 제2의, 제3의 인권침해를 당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피해자의 인권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는 불균형적인 상황은 피해자들에게 상실감과

박탈감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형사소송절차에서 소외된 피해자는 국가의 형벌권을 쉽게 날크하지 못할 가능성성이 높고, 사건과 관련 가장 적합하고 확실한 당사자인 피해자가 배제된 수사와 판결은 그 신뢰성 보장에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근래 과거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을 위한 국선변호인의 역할만이 강조됐던 것과는 달리, 법무부를 중심으로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위한 법률조직인 제도의 보완 및 확대가 이뤄지고 있다.

그와 때를 같이 해 일선 검찰청에서는 기소 전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해 재판 진

행과정에 관한 문자서비스를 제공하고, 특정범죄피해자에 대한 위치 확인 장치나 이전비 지원 등 신병보호를 위한 제도 등이 시행되고 있다. 법원에서도 특히 성폭력범죄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부담을 최대한으로 줄이기 위한 소송 진행을 위해 고심하고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성폭력범죄나 특정강력범죄에만 국한된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인권보장에 아직 미흡하고, 피해자 대부분이 이러한 제도들을 잘 알지 못해 권리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가 겪었던 근현대사의 어두운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나, 피의자 및 피고인의 인권보장 문제는 절차적인 문제로 인식되거나

인권을 아는 것이 없다는 인식으로 인식된다.

이와 같이 사상 유례가 없던 중국인 관광객이 급증하자 웃지 못 할 사건도 속출하고,

장기간 고민하며 풀어 내야 할 과제도 늘어나고 있다. 먼저, 남도음식에 매료된 중국인 관광객이 음식에 어찌나 많이 먹는지 식당 주인이 남는 것이 없다고 불멘소리를 하는

가 하면, 호텔에서는 트윈룸으로 개조하느라 분주하고, 복도와 계단을 오가는 배는 때아닌 특수를 누리고 있다. 그러나 숙박업 소와 면세점 등 쇼핑센터 유치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이러한 추세라면 머지않아 전라남도가 중국인이 즐겨 찾는 주요 관광지로 부상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노력만으로는 어렵고 제3의 관광기반이라고 불리는 민간부문의 참여가 절실히 필요하다. 따라서 200만 도민과 교통, 숙박, 식당, 쇼핑시설의 종사자들은 우리 도를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들을 보다 따뜻한 미소, 상냥한 말씨로 맞이하고, 청결하면서도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베풀어 주기 바란다.

다음은 대형 크루즈선을 통한 관광객 유치다. 지난 3월 29일 이탈리아 선적 코스타 빅토리아호가 2100여명을 실어 나르고 있다. 이 밖에도 무안공항에 조만간 중국 선양에서 주2회 취항할 예정이고, 화동지역에서 전세기 가 15왕자 취항하기로 확정된 상태이며, 대련, 서안, 정주, 그리고 몽골에서도 전세기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협상이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다음은 대형 크루즈선을 통한 관광객 유치다. 지난 3월 29일 이탈리아 선적 코스타 빅토리아호가 2100여명을 실어 나르고 있다. 이 밖에도 무안공항에 조만간 중국 선양에서 주2회 취항할 예정이고, 화동지역에서 전세기

가 15왕자 취항하기로 확정된 상태이며, 대련, 서안, 정주, 그리고 몽골에서도 전세기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협상이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다음은 대형 크루즈선을 통한 관광객 유치다. 지난 3월 29일 이탈리아 선적 코스타 빅토리아호가 2100여명을 실어 나르고 있다. 이 밖에도 무안공항에 조만간 중국 선양에서 주2회 취항할 예정이고, 화동지역에서 전세기

가 15왕자 취항하기로 확정된 상태이며, 대련, 서안, 정주, 그리고 몽골에서도 전세기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협상이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다음은 대형 크루즈선을 통한 관광객 유치다. 지난 3월 29일 이탈리아 선적 코스타 빅토리아호가 2100여명을 실어 나르고 있다. 이 밖에도 무안공항에 조만간 중국 선양에서 주2회 취항할 예정이고, 화동지역에서 전세기

가 15왕자 취항하기로 확정된 상태이며, 대련, 서안, 정주, 그리고 몽골에서도 전세기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협상이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다음은 대형 크루즈선을 통한 관광객 유치다. 지난 3월 29일 이탈리아 선적 코스타 빅토리아호가 2100여명을 실어 나르고 있다. 이 밖에도 무안공항에 조만간 중국 선양에서 주2회 취항할 예정이고, 화동지역에서 전세기

가 15왕자 취항하기로 확정된 상태이며, 대련, 서안, 정주, 그리고 몽골에서도 전세기